



9면

구천동 계곡의 33경 비경  
'구천동 아사길' 탐방로 조성

# 전주매일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음 5월 24일) 제25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전주시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연남 이준본 대표, 최철 전주2세기병원 대표 등 12개 사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 없는 도시' 3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 호우특보 해제... 잇단 피해

### 도로유실·축사 침수 등 총 6건 부안 위도 228mm 최대 강수량

전북도는 지난 12일 오후 6시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13일 0시부터는 호우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도내 평균 163.2mm가 내렸으며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인곳은 부안군 위도 228mm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13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14일 오전중에는 대부분 지역이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호우특보는 13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에서는 이번 호우특보 기간중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와 2단계를 발령하여 시, 군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했다. 도내에서 많은 양의 집중호우

로 인한 피해상황은 공공시설 3건, 사유시설 3건으로 총 6건이 발생했다. 장수군 산서면에 위치한 위임국도 13호 도로일부가 유실됐고 번암면 지방도 721호 일부에 낙석이 떨어져 교통이 두절됐다. 또한 익산시 황등면에 사는 수목 2그루가 전도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유시설은 김제 공덕면 상가 앞 침수, 부안군 행안면과 동진면 축사 2동이 침수됐다.  
전북도 김양면 도민안전실장은 "비는 오늘 13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강한 비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틀에 걸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반 등이 약해졌기 때문에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 '해고 없는 도시' 809곳 동참

### 지난 1·2차 217곳이어 3차 협약엔 592개 사업장 요식업 123·의료계 81곳 등 소규모 사업장 확대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 고용안정 기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주도해온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동참사업체가 요식업계와 의료계 등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수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함에 따라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연남 이준본 대표, 최철 전주2세기병원 대표 등 12개 사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 없는 도시' 3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3차 협약에는 12대 대표 사업장과 비대면 협약 체결한 580개 사업장을 포함해 총 592곳이 동참함에

따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해고 없는 도시' 동참사업체는 지난 1·2차 217곳을 포함해 총 809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3차 협약에서는 요식업 123개 사업장과 의료계 81개 사업장 등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뜻을 함께 했다. 시는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동참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JTV 전주방송 뉴스 1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등 7개 언론사,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교육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상생분위

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상생사업체들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근로자의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하며 사업체와 근로자,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현 위기를 이겨내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경영지원 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차보전 전장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주 부분 지원 △고용보험 가입 컨설팅 지원 △고용유지 교육·훈련 참여 기업에 교육·훈련수당 지원 △지방세(취부세·지방소득세 등)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기업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21일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기업은 고

용유지를, 노동계의 경우 대화와 양보를 통한 기업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금융권은 △각종 지원정책 지원 △경영자금지원 △전주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고 없는 도시로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고용유지라는 큰 결단을 내려주시는 사업주들이 전주 전역,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생협약 업체 모집 및 지원사업 안내, 상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8-925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방치된 불법 폐기물 제로화"

### '전북도 35환경기동반' 운영

전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 불법 투기와 군산 임대공장 방치폐기물 대형화재 등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점검 등 상시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13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방치된 불법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은 헌법 제35조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국가·국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의무 이행을 위해 꾸려졌다. 35 환경기동반은 전북도(환경보전과, 민생사법특별경찰),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등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며, 각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휴·폐업 공장과 폐업 업체를 포함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463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동안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2019년 2월 이후 모두 4차례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말 현재 불법폐기물 5만3913톤 중 원인자 처리 및 행정대집행으로 2만3,884톤(58.7%)이 처리 완료된 상태이다.  
35 환경기동반은 행정부지사가 총괄 지휘하게 되며, 불법폐기물 제로화 시까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통해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 내 불법폐기물 방치, 화재 위험요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불법폐기물이 발견되면 원인을 밝혀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35 환경기동반 첫 회의를 통해 불법폐기물 제로화 추진계획 공유 및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시·군의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이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